동광주 광대역통합망 구축

KT, TV·인터넷·전화 교환망 통합

단말기 하나로 TV를 보는 도중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1일 KT전남본부에 따르면 동광주지역 4만여 일반전화 가입자의 교환망을 음성과 영상, 데이터자료 등을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통합망(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으로 지난달 29일 전환했다.

광대역통합망은 통신·방송·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와 음성이 유무선으로 통합돼 같은 단말기로 전화·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가전제품·자동차 등을 연결해 원격제어 하는 등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킹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송기유 KT전남본부장은 "광대역통합망 개통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 창출과 유비쿼터스 통신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고객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위성DMB 월정액 1,000원↓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6월부터 채널을 개편하고 저렴한 가격의 새 패키지 요금제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TU미디어는 비디오 9개 채널과 오디오 19개 채널로 구성되는 슬림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채널을 일부 변경하고 월정액 요금을 7천원에서 6천원으로 내렸다.

채널조합형 패키지는 기존의 요금상품과 달리 전체 채널 중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직접 선택해 이에 대한 요금만 내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9개의 프리미엄 채널들을 채널당 1천원에 입맛대로 골라서 볼 수 있다. 단, 최초 선택한 채널에 대해서는 2천원을 내야 한다.

TU미디어는 또 SK텔레콤과 마케팅 제휴를 맺고 SKT 이용자 중에 위성DMB에 가입하면 슬림패키지(비디오 9개 채널, 오디오 19개 채널)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SKT, 목포대에 IT장비 기증

SK텔레콤(대표이사 김신배)이 최근 목포대에 IT기술교육용 실습장비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장비는 시스코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IT장비인 라우터-스위치 24대다.

이 장비는 SK텔레콤의 IT시스템 구조 개선에 따른 유휴 장비로 대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돕고 우수 IT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목포대에 기증하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IT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IT기술교육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UCC 1인자' 김소연씨에 배우는 UCC 노하우

'UCC 1인자' 김소연씨가 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초청돼 청소년들에게 UCC 노하우를 소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편집 걱정 말고 무조건 찍어라"

UCC(User Created Content·손수제작물) 시대다. 정보제공자가 주는 지식, 이미지, 동영상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시대는 갔다. UCC로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가족과 세상에 대해서도 할말을 한다. 최근 '김밥할머니 폭행' UCC는 서울시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다. 그래서 UCC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UCC를 만들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UCC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도구의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1일 UCC 1인자 김소연(32)씨가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초청돼 청소년들에게 'UCC 노하우'를 들려줬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예언'으로 대상을 수상한 UCC 1인자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주부이기도 한 김씨에게 '예언'의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아 '나만의 UCC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

광주 '청소년 박람회' 참석…'나만의 동영상' 찍기 전수

◇일단 찍어라

먼저 '나만의 UCC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부터 챙겨보자. 동영상 촬영용 디지털 캠코더가 있다면 좋지만 최근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에도 사진 뿐아니라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어 그것으로도 가능하다.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선택한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뷰파인더에 담은 영상이 그대로 동영상 파일로 저장된다.

김소연씨는 작품 '예언'을 만들기 위해 광주 지하철에서 한 여학생의 꿈꾸는 장면, 집 근처 보리밭, 한반도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표현한 수완지구 건설 현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주요 장면들을 1~3분가량 짧게 촬영했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한류열풍, 유비쿼터스를 표현할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를 모았다.

짧은 간격으로 다양한 모습을 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생생한 멘트와 순간적인 장면을 열심히 포착하는 것이 UCC 동영상의 핵심이다.

◇편집 프로그램 두려워말라

동영상 촬영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편집이다. 어도비의 프리미어나 소니의 베가스와 같은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싸고 사용방법을 익히기도 어렵다. 초보자의 경우 이것보다는 싸이월드의 스튜디오나 야후의 야미, 윈도의 무비메이커, 유리드의 비디오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

김씨의 경우 유리드의 비디오 스튜디오를 이용해 동영상 편집을 했다.

먼저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촬영해 온 동영상을 왼쪽 '캡쳐 모드'에서 불러냈다. 캡쳐한 동영상은 두번째 '에디트' 메뉴를 이용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게 되는데 선택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스토리보드나 타임라인에 배치, 자르고 붙이며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이때 시간 순서에 따를 것인지, 인물별로 나눌 것인지 등 테마를 먼저 기획해야 한다.

김씨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들을 이어붙였다. '타이틀' 메뉴를 이용해 '나는 가끔씩/꿈속에서/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자막도 만들었다. 역동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면을 흐르는 배경음악을 삽입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동영상 파일(WAV)로 저장해 출품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씨의 작품 '예언' 우리 나라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탄탄한 구성과 전문가적 편집 기법으로 공모작중 최고의 점수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잘 나가는 UCC 10대 원칙

- 정면 촬영은 피하라. 얼짱 각도는 45도다.
- 반드시 배경음악을 깔아라.
-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백그라운드로 깔아야 노래가 산다.
- 쓸데없이 줌하지 말고 직접 가까이 가서 찍어라.
- 삼각대를 삼가라. 움직여야 제 맛이다.
- 풀샷과 클로즈업을 적절히 섞어 촬영하라.
- 역광에는 피사체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ㄷ시 햇볕을 등지고 찍어라.
- 개성을 살리고 싶다면 마이크, 모자, 안경, 머플러 같은 소품 활용은 필수다.
- 촬영 기술이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포샵이 있다.
- 촬영한 동영상은 컴퓨터로 옮겨 저장 후 편집하라.

이소연의 우주실험

❸ 노화의 신비 밝히는 초파리

'인간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초파리들이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함께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 환경과 발사·착륙의 충격 등을 견디고 1천마리 가운데 600~700마리가 살아남았다. 수명이 60일 가량인 초파리들이 소유즈호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보낸 12일은 인간으로 보면 10여년간 우주에서 생활한 것과 같다. 무중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요인과 노화의 신비가 이들 초파리를 통해 풀릴지 기대된다.

무중력 상태 인간의 노화 진행

미세 중력 적응 방법 개발

이소연 박사는 지난 4월8일 가로 17㎝, 세로 4㎝, 높이 8㎝, 무게 60g의 상자 안에 건국대 연구실에서 키운 초파리 1천마리를 넣고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20개의 칸막이가 있는 이 상자는 초파리들이 충격과 진동을 견디고 먹이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첨단 초파리집이다. 중력 반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정상 초파리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돌연변이 초파리 1천마리가 이 상자에 담겨 ISS에 올라간 것이다.

실험은 이 박사가 ISS에 머무는 동안 아침에 상자를 꺼냈다가 저녁에 다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초파리가 우주환경에서 인위적인 낮과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한 뒤 매일 5분씩 정상 초파리와 돌연변이 초파리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촬영,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반응하는 초파리가 우주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해 중력에 반응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은 어떤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실험 제안자인 건국대 생명과학과 조경상 교수는 "초파리는 사람과 유전자가 75%가량 같은 '모델 동물'이어서 초파리 유전자 변화를 토대로 사람의 유전자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실험 의미를 밝혔다.

조 교수는 "초파리 수명이 60일인데 10일을 우주에서 보내고 오면 사람으로 치면 10년을 우주에서 살다 온 셈"이라며 "초파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주에 10년간 머물다 온 사람의 변화를 유전자 단계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 환경, 발사 · 착륙 때 오는 충격과 진동 등 역경을 딛고 지구로 살아 돌아온 600~700마리의 초파리들은 조 교수에 의해 유전자 분석이 이뤄진다. 이들 초파리의 RNA와 일반 초파리들의 RNA를 비교해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됐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초파리가 우주 환경에서 빠른 노화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여러 우주실험들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무중력이 생체에 미치는 연구결과가 근육, 뼈, 혈액 등 주로 생체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변화들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1만3천개의 유전자가 중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실험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무중력 상태에서 초파리의 노화촉진이 빨리 진행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세 중력에 대한 적응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